

'만화' 즐겨 읽는 일본의 대학생들 연간 평균독서량은 일반도서 21.5권

이웃나라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에 「앙케트四季報」란 계간지가 있다. 46배판 1,000쪽이 넘는 이 잡지는 매년 그때그때 실시되는 각종 앙케트조사 자료를 정리·수록하는, 말하자면 정보의 데이터뱅크라고도 할 수 있는 특이한 성격의 잡지이다. 이 잡지의 최근호(89 가을호)에 일본의 대동경화재해상보협이 실시한 대학졸업반 학생들의 독서실태조사 자료가 실려 있어 흥미를 끈다.

조사대상은 수도권 4년제 대학의 4학년생 남녀와 단기대(초급대)의

2학년생 여자 500명. 이들에게 '대학 시대에 즐겨 읽은 책의 장르'(복수응답)와 '1년간의 독서량'을 물었다.

이에 따르면, 대학시대에 즐겨 읽은 책은 주간지·월간지(46.6%), 추리소설(45.6%), 코믹·만화(45.4%)의 순으로 이들 세가지가 '베스트3'을 이루고 있다. '베스트3'에 공부와 관련있는 전문서적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 기이한 느낌을 준다.

그 다음으로는 약간씩 차이를 두고 순문학(27.8%), 연애소설(27.2%)의 순. 6위에 이르러야 공부

와 관련있는 전문서적인 사회과학(24.6%)이 등장하고, 역사·시대소설과 년픽션(각23.6%)이 그 뒤를 잇는다. 또 사회과학 이외의 전문서적으로는 역사·지리(20.4%), 철학·심리학·종교(18.4%), 자연과학(15.6%) 등이며, '그밖의 전문서'가 34.2%이다.

성별로 보면, 4년제 남자의 경우는 코믹·만화(62.7%)가 으뜸이고 주간지·월간지(49.3%)와 추리소설(48.0%)이 그에 버금간다. 4년제 여자는 순문학과 주간지·월간지(각 43.0%) 및 연애소설(42.0%), 단기대 여자는 연애소설(55.0%), 추리소설(44.0%), 주간지·월간지(42.0%)가 각각 베스트3을 이루고 있다. 4년제 여자나 단기대 여자의 경우, 코믹·만화는 각기 20% 전후로 4년제 남자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난데 반해 연애소설, 순문학, 년픽션, 에세이 등은 4년제 남자보다 즐겨 읽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대생들의 軟派物 취향을 엿보게 한다.

1년간의 독서량(만화·잡지 제외)은 과반수(54.6%)가 19권 이하이고 20~29권 18.2%, 30~49권 6.4%, 50~99권 10.8%에 연간 100권 이상도 3.8%나 된다. 줄잡아 평균 21.5권, 한달에 1.8권꼴을 읽는 셈이다. 성별 평균은 4년제 남자가 19.1권, 4년제 여자 26.5권, 단기대 여자는 23.4권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이 읽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어떨까. 수중에 비교해볼 자료가 없어 아쉽지만, 한국출판연구소의 대학생독서실태 조사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니 그 결과가 궁금하다.

출판저널

통권 제 51호/1989년 11월 20일 발행

발행인—鄭鎭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壹秀
편집주간—李勝羽
편집차장—康鐵柱
기자—金芝媛 權正子 李權雨 洪賢淑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鎭
업무·광고—崔兌源 李義天
崔炳天 金俊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전산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명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珉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谷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潤昊
成完慶	宋相庸	慎鐘履	安秉永
安輝濟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環薰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元薇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鎭弘	鄭丙圭
曹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鐘庫
韓相震	韓勝憲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예약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작은형(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 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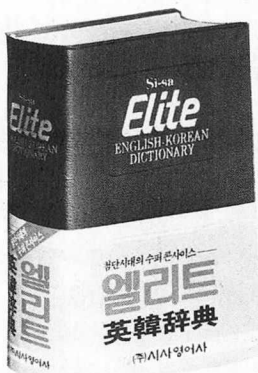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12월15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 앞(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53호(90년 1월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주)시사영어에서 펴낸 「엘리트英韓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제1

조선 중기에 소설 「홍길동전」을 쓴 작가 許筠의 누님으로서 「怨聞歌」 「遊仙詩」 등의 작품을 남긴 여류문인은 누구인가.

1. 許篈

2. 許蘭雪軒
3. 許復良

문제2

李光洙의 장편소설로서, 지식층 출신의 주인공인 허송이 지위와 가정과 재산을 버리고 농촌에 들어가 단순한 농민들 속에서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묘사한 작품은 무엇인가.

1. 흙
2. 상록수
3. 무정

문제3

「史記」는 「春秋」의 編年體를 버리고, 紀傳體로 역사의 서술을 개편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는 역사책이다. 「史記」를 쓴 漢나라 역사가는 누구인가.

1. 司馬光
2. 司馬遷
3. 羅貫中

문제4

평생동안 어김없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독일 철학자 칸트가 단 한번 늦잠을 잤다. 그 이유는 밤새 「에

밀」을 탐독했기 때문인데, 이 교육소설의 작가는 누구인가.

1. 몽테스키외
2. 로크
3. 루소

제49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9호(10월5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126통, 이중 정답자는 95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1. ① 哲宗(제25대)

「朝鮮王朝實錄」은 조선 태조대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編年體로 기술했다. 모두 2,077책으로 국보 제151호.

2. ② 고려

通文館은 고려때 譯語를 맡은 관아로서 충렬왕 2년(1276)에 설치됐다. 후에 司譯院으로 바뀐다.

3. ② 베아트리체

단테는 아홉살경, 소녀 베아트리체를 만나 그의 환상을 평생토록 간직하며 사랑의 시집 「新生」과 최대의 걸작 「神曲」을 남겼다.

4. ② 10일간의 이야기

열사람이 매일 열편씩, 열흘 동안 계속한 100편의 이야기를 모은 것. deca(ten)+hémera(day)의 합성어.

당첨자

변준석(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여고 내)

최이준(서울 노원구 월계2동 삼호 APT 22동 102호)

안옥경(광주시 북구 신안동 353-11 이순식씨택)

양민중(서울 관악구 봉천8동 152-2-18)

김경숙(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신라연립 A동 106호)